

검사항목에 관한 기초적 해설

※참고: 정확한 진단 판정은 아래 임상학적 의의를 기초하여 전문요원이 복합적으로 분석 판명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판정은 금하며 상세한 것은 전문의에 문의하십시오.

구분	검사종목	관련질환 및 임상적 의의	
매독	VDRL	매독의 감염여부를 보는 검사로, 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TPHA 검사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부의 정상인,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말라리아, 전염성 단행구증, 간염, 나병, 폐렴 등의 경우 위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TPHA 검사결과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옴) VDRL은 매독의 초기, 중기에는 거의 양성을 나타내며, 그 역자가 높다가 치료를 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역자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치료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음성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즉 치료후 매독이 음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어떤 Case에서는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생동안 양성반응을 보임을 참고해야 한다.	
간암	$\alpha \cdot fp$ 알파피토단백	태생기의 간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나 출생 후에는 혈액 중에 나타나지 않고 간암 환자의 70~80% 정도에서 검출된다.	
B형 간염(HBs)	Ag(항원) -	항원: 음성 Anti-HBs -	항체: 음성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지 않았으므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Ag +	항원: 양성 Anti-HBs -	항체: 음성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였으므로 종합적인 간기능 검사와 간염 정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방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Ag -	항원: 음성 Anti-HBs +	항체: 양성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가 생겼으며 예방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접종하여 면역이 생겼다면 추가접종 기일을 지켜야 한다.
	Ag(e항원) -	항원: 음성 Anti-HBe -	항체: 음성 불현상 감염 또는 보균자로서 감염을 일으키지 아니한 상태나 주기적인 검사로 변화 관찰.
간염 정밀검사(HBe)	Ag +	항원: 양성 Anti-HBe -	항체: 음성 활동성 간염, 급만성간염 가능성이 높으며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요한다.
	Ag -	항원: 음성 Anti-HBe +	항체: 양성 간염 회복기일 경우이며 추후 간염검사시(HBs) 항체 양성으로 회복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형 간염	H.C.V	최근에 원인이 규명된 간염 Virus로 혈액, 성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며, C형 간염환자의 70% 이상이 간경화, 간암으로 전이됨.
X-Ray 간촬		각종 늑막 질환, 폐결핵 등 폐질환진단에 이용되며 이상소견시 전문의 상담 및 직접 촬영을 요망한다.	

〈자료 : 건협 서울지부 강동의원〉